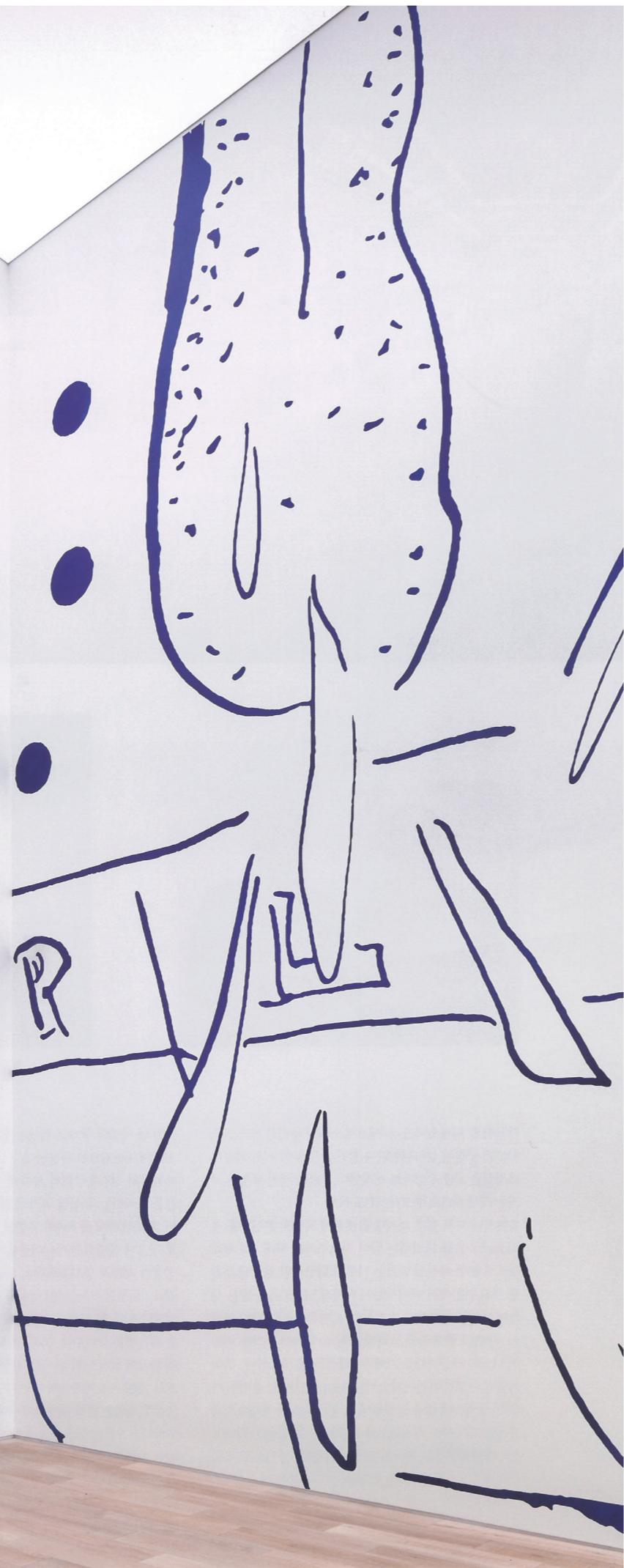




파운드리 서울의 개관전으로 열린 헤닝 스트라스부르거의 '오 배드 보이'. 그의 대형 회화 작품은 관람객을 압도한다.



courtesy of FOUNDRI SEOUL, KYUNG ROH

# THE NEXT NEW WAVES

이전과는 다른 세상과 마주하고 있는 예술계에 새로운 시선과 방향을 던지는 국내의 갤러리들.

그들로부터 직접 '갤러리의 현재'에 대한 생각의 단편을 전해 듣는다.

*writer CHUNG YUN JOO*

코로나가 예술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갤러리와  
뮤지엄을 찾던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거리두기로 인해 문을  
닫은 시기도 있었다. 예술계의 축제라 할 아트 페어는 일정을 미  
루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아티스트는 해외에서 열리  
는 자신의 전시에 가지 못하고 작품만 보낸 채 관람객과 화상으  
로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팬데믹은 오히려 조금은 보수적이던  
예술계와 관람객, 컬렉터에게 온라인과 비대면의 도입을 앞당기  
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 바탕에는 얼굴을 마주하지 않

아도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즐길 만한 능력을 갖춘 MZ세대. 바로  
20대와 30대를 아우르는 젊은이들의 영향력이 있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아티스트의 이름이나 장르, 지난 이력이 아니라 현재  
눈앞에 보이는 작품 한 점의 매력이다. 지금 MZ세대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장 뜨겁게 열광하는 전시, 그들의 지갑을 과감히  
열게 만드는 전시, 팬데믹 시대의 관람객을 보듬고 위로하며 끌  
어올리는 전시, 무엇보다 젊고 색다른 아티스트의 취향과 개성을  
존중하며 포용하는 전시를 선보이는 갤러리 세 곳과 만났다.

## FOUNDRY SEOUL

파운드리 서울은 올해 6월 개관한 신생 갤러리지만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남동에서 햇한 건물 인구짜 가옥 건물의 지하에 자리했다는 것, 개관 전부터 다수의 이목을 집중시킨 젊은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선보였다는 것, 전시 공간을 두 곳으로 나눠 최대한 여러 스타일과 관점의 작품을 포용할 수 있는 것, 관람객이 앞으로의 전시를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는 것, 코로나 시대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며 오픈한 만큼 팬데믹을 온몸으로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명민하게 찾아간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파운드리 서울의 윤정원 이사에게 질문을 던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L'OFFICIEL*(이하 *LO*) 갤러리 이름에 담긴 스토리는 무엇인가?

*FOUNDRY SEOUL*(이하 *FS*) '파운드리(Foundry)'는 다양한 금속을 녹여 새로운 형태의 제품으로 만드는 '주조 공장'이라는 뜻이다. 온도와 주형에 따라 물성과 형태를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공장처럼 독창적 아이디어와 실험적 형식을 다루는 작품을 다양하게 소개하고자 하는 갤러리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했다.

*LO* 갤러리의 위치에 대한 이유와 이점이 있다면?

*FS* 파운드리 서울은 이태원 거리와 가까이 있다. 다양한 취향과 문화, 예술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 중심지에 있다는 건 갤러리 입장에서 도전이 된다. 언젠가 파운드리 분관이 생기다면 *파운드리 마이애미*가 좋겠다. 마이애미는 홀륭한 컬렉터가 많고 아트 페어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다. 마이애미에 분관을 열면 국내 아티스트의 작품을 해외에 소개하거나 남미의 흥미로운 작품을 더욱 가까이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꿈만 같은 이야기다.

*LO* 관람객의 반응이 특히 좋았던 전시는 무엇인가?

*FS* 우리 갤러리는 동시대 중요한 아티스트로 주목받는 블루칩 아티스트와 이미징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파운드리 서울, 그리고 독창적 아이디어, 실험적 매체와 형식을 다루는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바이파운드리의 두 전시 공간으로 구성된다. 현재 파운드리 서울의 개관전인 헤닝 스트라스부르거(Henning Strassburger)의 '오 배드 보이(Oh Bad Boy)', 바이파운드리 개관전인 디자이너 듀오 강혁(Kanghyuk)의 '리피트(Repeat)' 전시가 모두 종료되었는

데 두 전시 모두 현장과 SNS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오 배드 보이' 전시는 베틀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젊은 아티스트가 아시아 최초로 펼친 개인전이다. 화려한 컬러감이 매력적인 페인팅 작업, 특히 SNS에 가로 10미터, 높이 7.5미터의 대형 월 페인팅 작업 사진이 많이 게재된 것을 보고 아티스트도 놀랄 정도였다. '리피트' 전은 패션 디자이너로서 다수의 컬렉션을 경험한 최강혁과 손상락 작가의 독창적 미감과 실험적인 형식을 소개했다. 관람객들은 자동차 애어백을 소재로 한 도전적 방식의 설치 작업과 아름다운 프레젠테이션을 매우 좋아했다.

*LO* 갤러리에서 전시하는 작가는 어떤 과정을 통해 만나게 되나?

*FS* 물리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많이 보고 찾다 보면 그만금 반짝이는 아티스트를 만나게 된다. 직접 방문하는 걸 선호하지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아트 뉴스, 아트넷, 아트시 등 예술 관련 온라인 플랫폼에서 미술계의 흐름과 새로운 아티스트를 파악하고 있다. 주요 뉴지엄의 뉴스레터와 대표적인 아트 페어의 온라인 뷰잉 룸도 도움이 된다.

*LO* 최근에 눈여겨보는 아티스트는 누구인가?

*FS* 제니퍼 구디(Jennifer Guidi), 마리나 페레즈 시마오(Marina Perez Simao)의 작품이 눈에 띈다. 설치 작가인 사라 제(Sarah Sze)의 작품도 놀랍고 질 물리디(Jill Mulleady)의 페인팅 작품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국내 아티스트 중에는 디지털과 회화를 오가며 작업하는 한선우 작가를 주목하는 중이다. 지난 7월 홍콩의 WOAW 갤러리에서 선보인 작품을 보고 높은 완성도로 놀랐다. 앞으로의 작품 활동이 정말 기대된다.

*LO* 요즘 전시를 관람하고 예술 작품을 구매하는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다. MZ세대로 불리는 이들이 예술을 대하는 태도와 스타일은 어떠한가?

*FS* MZ세대 관람객과 컬렉터는 자신의 취향에 대해 더욱 섬세하게 고민하고 집중하는 것 같다. 기관이 제시하는 예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작품을 즐기거나 비판하는 데에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 작품을 구매할 때 더욱 과감하게 선택하기도 한다. 예술을 진지하게 컬렉팅하는 MZ세대는 이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직접 찾아보고 공부하며 스스로 안

목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더 많은 젊은 아티스트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건강한 미술 시장을 형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한다고 본다.

*LO* 젊고 새로운 MZ세대 아티스트도 눈에 많이 띈다.

*FS* 아티스트 또한 이전 세대와 많이 다르다. 그래픽 틀,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디바이스 등 최신 기술의 새로운 도구에 익숙하고 실시간으로 아주 쉽게 다룬다. 10월에 바이파운드리 전시를 진행하는 장명식 작가가 대표적인 MZ세대 아티스트라고 하겠다. 작품 자체가 극엽고 매력적인 것은 물론 그래픽 틀을 이용해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 방식이 특히 놀랍다. SNS에서 대중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수용하며 작품을 반영하는 것도 MZ세대답다. 헤닝 스트라스부르거 역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젊은 아티스트다. 코로나 때문에 방한하지 못하자 관객이 보내는 SNS 메시지에 직접 응답하며 소통했고 SNS 포스팅을 직접 리포스팅하며 전시 홍보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LO* 팬데믹이 갤러리에게 준 영향은 무엇인가?

*FS* 올해 6월 파운드리 서울이 개관했는데 개관전 아티스

트 섭의 당시부터 이미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아티스트와의 만남, 전시 기획 및 준비 과정을 모두 화상 회의로 진행해야 했고 작품 배송 기간도 평소보다 몇 배나 더 걸렸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최대한 서둘러 준비했다. 전시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등의 기획도 실행 직전에 많이 취소됐다. 안전하게 전시를 마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다.

*LO* 팬데믹 시대에 갤러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FS* 코로나로 인해 많은 기관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방식을 고민했고, 젊은 시간 동안 전 세계 미술계가 한마음이 되어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작품을 직접 마주했을 때 경험하는 감동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이 점은 아마 대부분의 갤러리가 동감할 것이다. 파운드리 서울이 이런 환경에서 더 많은 관람객이 작품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안전한 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시와 연계된 유익한 온라인 콘텐츠 또한 활발하게 제작하고 실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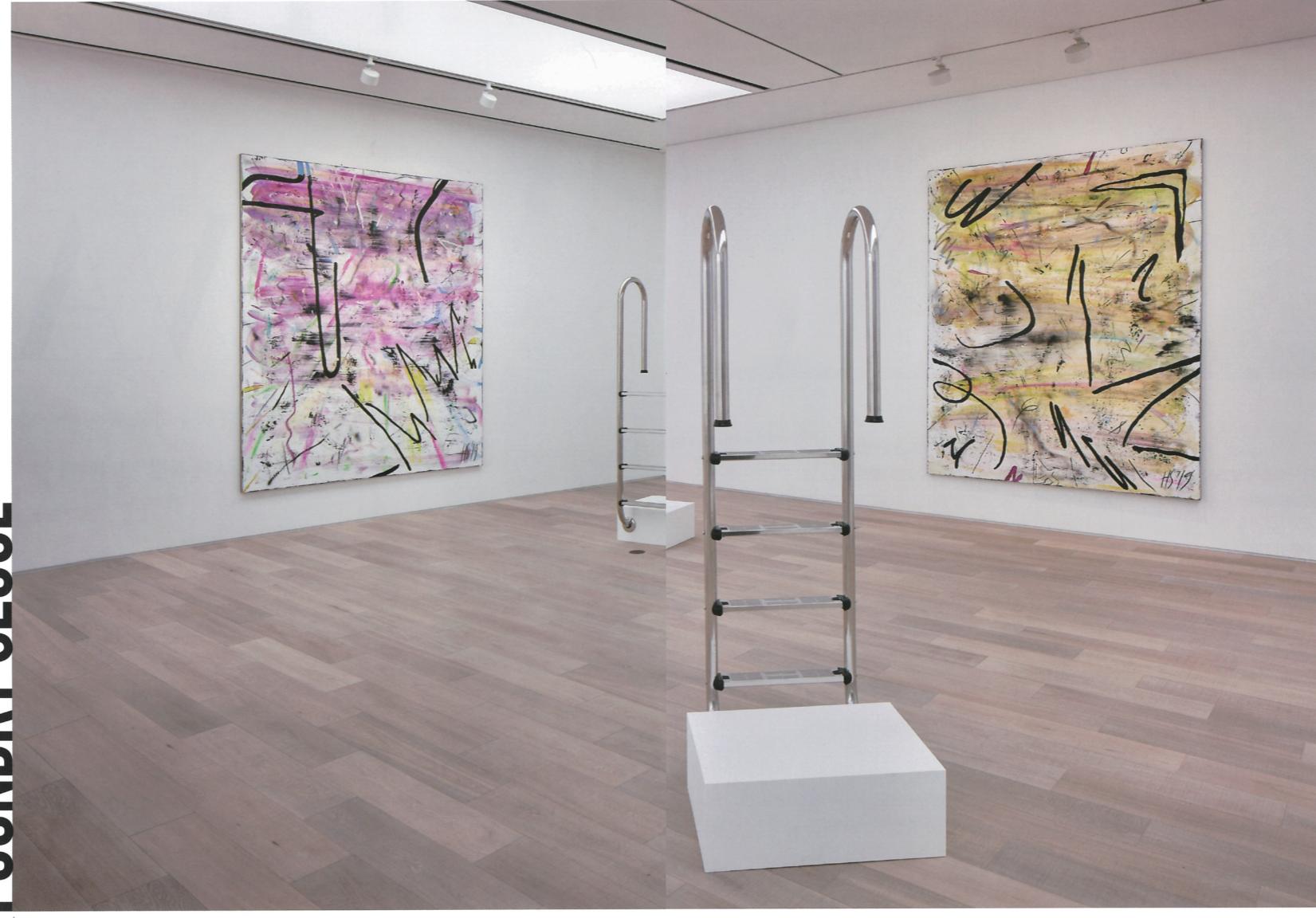
*LO* 하반기에 진행하는 전시는?

*FS* 10월 초에 뉴욕 브루클린과 코네티컷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 이건 프란츠(Egan Frantz)의 회화 작품과 국내 미디어 아티스트인 장명식 작가의 영상 작업을 소개한다. 두 전시 모두 갤러리 입장에서도 재미있는 도전이다.



1

FOUNDRY SEOUL



3



5



4

1 베틀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 헤닝 스트라스부르거의 작품 (B-B-B-Coin)(2018).  
2 신진 아티스트 헤닝 스트라스부르거의 첫 국내 전시였던 '오 배드 보이'.  
3 팝과 디자일 이미지를 주제로 작업하는 헤닝 스트라스부르거의 작품들.  
4 디자이너 듀오 강혁으로 활동하는 손상락의 작품 (베이비 알파카)(Baby Alpaca)(2021).  
5 인공 소재, 균형의 세 가지 개념을 다룬 디자이너 듀오 강혁의 작품 (trwpolska30327008E)(2021).



2